

트럼프 2.0시대 다시 세우는 한국의 대응전략

- 일시: 2024년 12월 11일 (수) 오후 14시
- 장소: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발제: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토론: 윤주진 정치평론가
이진우 한반도청년미래포럼 국제지부 대표

트럼프 2.0 시대 다시 세우는 한국의 대응전략

일시 2024 12.11(수) 오후 2:00

장소 열림홀

주최 자유기업원

발제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토론 윤주진 정치평론가
이진우 한반도청년미래포럼 국제지부 대표

STRATEGY IN TRUMP 2.0

트럼프 2.0 시대, 세계와 한국¹⁾

김정호(서강대 겸임교수, 김정호의 경제TV)

1. Pax Americana 에서 America First로
2. 자유무역 체제의 종말
3. 군사-외교 관계: 동맹에서 거래로
4. 전체주의-독재 정권 확산
5. 한국에 닥친 시련과 대응 방향

Pax Americana 에서 America First로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그의 America First 정책을 택한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자유주의 확산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자유시장경제를 전세계로 확산하는 것이었죠. 독재와 인권탄압국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도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기 위해 세계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켰고 미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해 왔습니니다. America First 는 이제 그 일을 그만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원래 이 지구는 약육강식의 땅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외교 덕분에 강대국들에 의한 영토확장 전쟁은 사라졌고,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나라들이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되어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절대 빈곤 인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그랬던 이유는 2차대전 이후 정확히는 트루먼 대통령 이후 그런 역할을 신이 부여한 책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자유주의적 세계를 위한 미국의 헌신, 책임을 끝내려고 합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무역이든 군사적 동맹이든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1) 이 글은 <김정호의 경제TV>에 업로드된 두 영상, <이제 미국이 희생하지 않는다>와 <트럼프의 폭탄 관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 선언! 전세계 경제가 겪을 대혼란>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의 종말

먼저 무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여기에 대해 트럼프는 매우 무지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그런 식의 사고 말입니다. 한국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만 말입니다. 미국인들 중에도 특히 중서부(Midwest) 러스트벨트 지역 백인 블루 칼러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표출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 정서를 대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애를 먹을 겁니다.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말입니다. 사실 무역적자는 기축통화국의 피할 수 없는 특성이고 그 덕분에 미국 달러가 세계 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무역흑자국들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 간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60%,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10-20%를 관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두고봐야 합니다만 아마도 대미 무역흑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관세를 매기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어느 정도 줄겠지만, 미국내 물가는 많이 오를 겁니다. 어리석은 정책이지만 다수의 미국인과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그렇게 가겠지요.

자유무역 체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 자유무역기구 WTO를 주도 했었지요.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FTA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은 못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은 상대방 국가에 상당한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말이죠. 예를들어 한미FTA의 경우 한국농산물은 미국에 마음대로 팔 수 있어도 미국 농산물은 한국에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자유화의 유예기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것이 훨씬 많고 길지요. WTO 같은 경우도 선진국은 문을 활짝 열지만 개도국은 예외조항을 두어 시장을 상당 부분 달아둘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 덕분에 수출은 늘리면서 자국에 대한 수입을 막아둘 수 있었지요. 말하자면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 약소국 개도국들의 어리광을 받아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America First 체제 하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차츰 사라지게 될 겁니다. 미국도 중요한 물자들은 자급자족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날 겁니다. 바이든 때부터 이미 반도체 배터리 같은 중요 물자는 그러기 시작했죠. 구체적 품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품목의 수와 폭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관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도 그것이고요.

무역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하더라도 상대국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으려 할 겁니다. 시장개방을 예로 들자면요. 네가 개방하는 만큼만 나도 개방할거야...

이런 식이 되겠지요. 후진국이라고 봐주는 것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FTA 반대니 뭐니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마 IMF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도 크게 축소될 거예요. IMF의 가장 큰 역할이 국가부도 난 나라에 구제금융 해주는 거 였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미국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1998년에 구제금융 받고, 상환 유예도 받고 해서 겨우 부도를 면했지요. 그런데 아마 구제금융 같은 것...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부도가 나면 나는 거지... 미국이 왜 나서서 도와야 해? 이런 분위기가 강해질 겁니다.

월드뱅크도 그래요. 가난한 나라 도와서 경제발전 시켜주는 것이 이곳의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 많이 받았습시다. 지금은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 도움을 받고 있지요. 여기에 제일 돈 많은 내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지요. 아마 그런 돈 내기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중국이 1대일로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채함정이라는 비난들이 생기는 거고요.

군사-외교 관계: 동맹에서 거래로

경제는 그렇다 치고... 정치 외교 군사적인 면을 살펴 볼까요? 지난 80년 동안 미국은 전세계에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왔습니다. 미국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이차대전 이후부터 40여년 동안은 공산주의 확산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함이었고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30년은 독재 및 테러 세력 억제와 보편적 인권의 확보를 위함이었죠. 그것이 미국 외교 군사정책이 지향하는 바였으니 그것을 위한 비용도 미국이 큰 비중을 부담했습니다.

주한미군만 해도 그렇지요. 거의 40년 동안 우리가 한 푼도 부담 안다가 1991년부터 분담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회계청 자료를²⁾ 보면 2016-19년 4년 동안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인건비를 13억 달러인데요. 한국 부담액은 58억 달러입니다. 주일미군의 경우는 미국이 209억 달러, 일본이 126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그 비중이 훨씬 늘었겠지요. 그래도 절반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자들은 미국이 원해서 주둔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냐며 목청을 높입니다. 기존의 자유주의 외교 노선 하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의

2) <https://www.gao.gov/products/gao-21-270>

지향점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니까 그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한다 해도 크게 억울할 것은 없지요.

하지만 트럼프의 America First기조 하에서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동맹국의 민주주의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굳이 군대를 주둔시켜가며 한국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 한국은 미국을 공격할리 없으니 오히려 위험한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지요. 실제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 받았으며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인식의 틀이 이렇게 달라졌으니 주한미군으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나라 간의 조약을 선불리 뒤집을 수는 없기에 그것으로 최대한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지요. 더 아쉬운 쪽은 우리이니 결국 들어줄 수 밖에 없을 터이고 말이죠.

글로벌 파워 게임에서 미국이 빠진 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리 된다고 해보죠. 푸틴이 거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힘을 축적한 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으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들이 헝가리나 벨라루스처럼 알아서 머리 숙이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이 구경만 하고 있는 데 약속국이 어떻게 군사강국 러시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NATO의 붕괴 가능성 마저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동아시아도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까요? 중국이 무단으로 점령하다 싶어 하고 있는 남중국해는요? 물론 트럼프도 러시아와 달리 중국을 적으로 여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대적으로 보이기 까지 합니다. TSMC가 미국 실리콘밸리 반도체 사업을 다 훔쳐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방어에도 돈을 안쓴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방위비 부담액을 GDP의 10%, 현재의 4배로 높이라. 그리고 미국 무기를 구매하라는 요구이죠.

이런 분위기라면 시진핑이 ‘자 그래… 당신이 원하는데로 미국에 수출 안할게. 그리고 미국 농산물 많이 사줄게. 그 대신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마.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거래를 제안한다면 트럼프가 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에 러시아 제국, 중국 제국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모두 중국에 목줄을 잡히게 되는 셈이죠.

물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 마이크 알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오히려 대만의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요. 반면 트럼프가 최고의 동지라고 치켜세우는 일런 머스크는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진영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대만이나 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가,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리라는 것이죠.

전체주의-독재 정권 확산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제 독재자들의 세상이 될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북한 김정은, 헝가리의 오반,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 말이죠. 안 그래도 2009년 이후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독재국가들이 늘어왔는데,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독재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거예요. 포퓰리즘, 퍼주기정책 민족주의 같은 것으로 표를 얻어 집권한 후 독재자로 변하게 될 겁니다. 푸틴, 에르도안이 다 그랬죠.

게다가 그 동안 감시자였던 미국 대통령마저 독재자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ABC, CBS 방송 등 비판언론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미국이 유럽, 아시아에서 물러난다 해서 약소국으로 전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최고의 강대국이죠. 다만 다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미국 영토로 삼는 일은 없겠지만, 세계의 평화, 인류의 인권 같은 것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한국에 닥친 시련과 대응 방향

우리 대한민국은 커다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지킬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미국도, UN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우선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키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다수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싶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국내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세력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체주의 압력으로부터도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방력을 늘리는 것은 물론, 국내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견디는 심리적 힘도 길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두가지의 시련이 밀려올 겁니다.. 첫째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늘리라는 압박일 겁니다. 저는 미군 주둔 비용의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들 만큼의 역지력을 한국인 스스로 갖추려면 얼마나 큰 비용이 들지를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관세도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대미 흑자는 수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큼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보편관세율 중 최고인 20%를 부과 받기 십상이죠. 그 뿐 아닙니다. 대중국 관세를 60% 높일 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이 대폭 축소될 텐데, 그것이 미국 외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출강국들의 판로를 잠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 감소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크게 기대할바는 못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늘고, 수출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쉬워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및 시설 투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조강국으로 만들고 싶어하죠. 그러자면 미국 내 시설 및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요. 한국은 최근 들어 미국 내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기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 수도 줄 수도 있음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제조 능력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에서 중국이 배제되면서 제조능력의 거대한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 해군력 증강에 한국 조선산업의 협력을 요청한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배 만드는 능력을 아쉬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도 그렇지요. 폴란드가 무엇 때문에 평소엔 잘 알지도 못하던 먼나라 Korea에서 탱크와 자주포를 사가겠습니까. 독일, 미국 같은 방산 강국을 제치고 말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생산라인을 가동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전 산업도 그렇습니다. 체코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IDF를 제치고 한국의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그 나라들에 공사를 셀게도대로,

제때에 마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제조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산 물건 등을 수입해서 써왔는데,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관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제조능력은 없는데, 물건 수입은 줄이려면 자국 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하나, 즉 제조 능력을 가진 인력을 수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민자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력이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만 하더라도 그가 싫어하는 것은 불법이민자,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입니다. 고학력 인재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제안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선진국들이 고급 제조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 배제되어 갑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는 데 한국은 강력한 후보입니다. 특히 고급 제조 인력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산업 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다른 분야도 많은 고급 제조 인력 보유국입니다. 그 인재들을 수출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한국의 인재를 원할 겁니다. 한국 인재들도 살기 좋은 그 나라들로 가고 싶어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으니 고급 인력들도 같이 진출하게 해달라고 미국에 거래를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성사 가능성도 높고요.

이런 상황을 인재 유출이라며 싫어할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 한번 나가서 아예 그 나라 사람이 되어 버릴 경우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재가 미국으로 나가 거기서 활동하고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권의 확장입니다. 한국인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겁니다. 대만 인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 창업자 쟌슨황. 그의 본명은 黃仁勳 대만 출신 미국인입니다. 엔비디아는 설계하고 제조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게 맡기죠. 매우 깊은 관계입니다. 그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도 대만 출신 미국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張忠謀 미국서

대학 나온 후 TI에서 오래 일하다가 대만으로 복귀했지요. 유튜브의 창업자는 스티브 첸, 야후 창업자 제리양, AMD의 CEO 리사 수 모두 대만 출신들입니다. 대만이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에 이들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고의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 인재의 세계 진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끝나지 않도록 남아 있는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들에게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분위기,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으로 나갔던 우리 인재들이 다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지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만...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게 되도록 사고의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살아온대로 계속 살면 그 파도에 쓸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각자 세계 속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특징과 한국의 대응 전략

발표자 :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 조선비즈 대표, 저서 <신의 개입 :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 등)

<A> 트럼프 2기 시대의 주요 특징

(1) 미국 국민의 승인(承認) 받은 트럼프주의(Trumpism)

- 2024년 11월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7개 경합주는 물론 전국 투표율에서 20년 만에 민주당을 능가. 연방 상·하원 선거와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공화당 승리

(2) 새로운 미국의 탄생

- 1회성 대선 승리 넘어 미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출발, 다른 나라(different kind of country)의 탄생
- 동서부 연안 엘리트들과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워싱턴 기득권 (establishment) 세력들이 주도한 미국 시대의 종언

(3) ‘성채(城砦) 미국’(Fortress America)의 대두

- 백악관을 70년 넘게 지배해온 ‘선의(善意)의 국제주의(benign internationalism)’ 퇴장
- 높은 관세(경제통상)와 국방비 증액(군사안보) 요구하는 미국
- “더 이상 세계의 호구(sucker) 될 수 없다” “중국의 배만 불러줄 수 없다”
“잘 사는 나라들의 방위를 미국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돈(국방비) 더 많이 내고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운영에 동참하는 나라

만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관리한다”

(4) 중국과의 신냉전(New Cold War)에서 승리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2’는 단순한 정치 구호 아님. 미국의 세계적 패권 재건하고 중국의 부상 저지하겠다는 종합 전략
- 중국의 미국 추월 및 붕괴 노력은 상상 초월하는 수준 (stealth war,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 트럼프의 국방개혁, 교육개혁, 선거제도 개혁, 불법 이민 개혁 정책 등의 근저에는 모두 ‘반(反)중국 기조’ 깔려 있음

<2> 미국의 황금 시대(golden age of America) 목표

(1) 연방 정부 대수술

-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국내의 파괴와 혼란이다”→ ‘Deep State’ 척결+ ‘Drain the Washington Swamp’→FBI-법무부 등 권력기관 대수술, 행정부 슬림화(연방정부기관 428개를 99개로), 교육부 폐지 등 연방공무원 대거 해고 및 구조조정
- 최대 10만여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을 워싱턴DC 외곽으로 재배치+부처 이전
- 5만여명의 연방 정부 관료들을 ‘스케줄F’ 대상으로 재분류...대통령에게 말썽 부리는 고위 관료(rogue bureaucrats) 해임권 부여
- 딥스테이터들의 권력 남용 및 간첩행위 처벌 조사하는 ‘진실화해 위원회’

(2) 법·질서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부터 오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마약 등 차단
- 마약 카르텔에 대한 총력 전쟁
- 규제 완화와 철폐 + 기업가적 마인드, 혁신적 방식 도입

- 중국 경제 무력화 : 무역 최혜국(MFN) 대우 폐지, 제3국 경유한 우회 수출 차단, 최소 60% 고율 관세 중국산에 부과
- 미국을 다시 '제조업 허브'로 : 석유·가스·원전 등 풀가동→세계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 공급, 그린 뉴딜 폐지. 보편적 기본관세 대신 미국 노동자 가족 기업에 매기는 세금은 대폭 인하

(3)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 제3차 세계대전 방지, 환상적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미 전역에 구축, 중국의 군사력 추월 노력 저지하고 격차 유지·확대
- 이를 위한 국방·방위산업 강화, 주요 동맹국가와의 선별적 협력 강화
- AI(인공지능) 역량 등 강화

(4) Wokism-PC(Political Correctness)주의 등 좌파 문화와의 전쟁

- 성소수자, 동성애 등 LGBTQ에 대한 권장 폐지, 권리 축소
-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등 좌파 교육 추방
- 교육에서 학부모의 선택권 등 학부모 권리 강화
- 위대한→학교→위대한 직업→위대한 미국의 선순환
- 성인 대상 무료 온라인 교육 기관 'American Academy'

(5) 'MAGA3-4'로 계승

- 'Trump kids' 대거 발탁, J D Vance(40) 부통령 내정자를 필두로 피트 헤그세스(국방 44), 엘리스 스테파닉(40·유엔 대사), 털시 개버드(43·국가정보국장), 리 켈딘(44·환경보호청장), 장관급 인사 22명의 평균 나이는 56세
- 충성파(loyalist) 강경 노선(hawkish) 워싱턴 아웃사이더(outsider) → 플로리다, 폭스 뉴스 출신 중용

<3> 한국의 대응법

(1)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객관적인 중립적인 이해

- 사기꾼, 범죄자, 또라이라는 왜곡된 편견·선입견에서 해방
- 트럼프의 강점과 약점, 특징 그리고 그의 진짜 생각과 면모 파악
- 트럼프의 발언과 협상의 특질 파악

(2) 트럼프와의 의기투합이 첫 번째 열쇠

- 트럼프 만족시켜 '원팀'이 되도록 하는 '알맹이' 중요
- 트럼프와의 개인적 공감대, 공통 분모 확대도 필요
- 트럼프는 전반부 2년 동안 속도감 있는 정책과 성과 내려 주력할 전망

(3) 韓美 '윈-윈' 분야 발굴... '주고 받기(Give & Take)'

-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방비 증액 외에 한국이 미국에 도움되는 분야(예 : 조선업) 발굴
- 한국이 미국 도와주는 댓가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아이템 찾아내 반드시 얻어내는 노력 경주해야
-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4) '안미경미' 노선으로 실리와 자주 확보

- 미국이 한국에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대중 봉쇄와 압박에 적극 참여 (대만해협, 남중국해, 중동 등 지역)
- 중국 배제된 자유주의 국제진영에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 및 실익 챙겨야
- 7개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 밀리는 한국
- 중국과 밀착할수록 한국은 정치군사적 속국, 경제적 하청 국가됨

[2기 트럼프 행정부 관련 세미나 토론문]

2기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에 주어진 기회

윤주진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정치평론가)

□ 들어가며

- 김정호 교수님과 송의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발제문은 일관되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서 설명해 주고 있음.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여러 정책과 의사결정에서도 입증된 것이며, 지난 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치밀하게 2024 미국 대선을 준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공약과 발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적 신념은 보다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다수.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둘러싼 국내외 언론의 시각은 다소 편향돼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음. 트럼프 대통령 發 경제·외교상의 난맥상은 분명 예상되나,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는 국가에게는 분명 효과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한국의 자유주의-보수주의 이념 정파에게 2기 트럼프 시대 도래가 시사하는 의미도 분명함.
- 본 토론문은 2기 트럼프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한국이 위기와 혼란을 기회와 역동적 대응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고자 함. 크게 경제, 외교, 국내 정치 분야 순서로 살펴볼 계획임.

□ 탁월한 국내 제조업 역량의 극대화 기회로 삼아야

- 김정호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계와의 협력 희망을 명시적으로 밝혔음. 이는 트럼프 당선 이전에도 이미 미국에서 거론됐던 주요 의제이며, 특히 군함 건조와 같은 아주 전통적인 방산 제조업 분야에 급속도로 취약해진 미국의 한국과의 협력 수요는 상당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도 탄약 공급 역량이 부족한 미국은 한국 정부의 탄약 보급을 요구했고 이를 한국이 수용하여 안보상 한미 협력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 여겨지기도 했음.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있어서도 건설, 토목, 장치 산업에 있어 역량이 탁월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주요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큼
- 이러한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공급망 블록화와 보호주의에 상당한 열의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미국-한국 기업의 화학적 결합을 매우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익의 분배에 있어 미국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분명히 두드러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소외될 우려도 있으나 훌륭한 기술력, 신속한 공급 역량을 지렛대 삼아 미국 행정부의 선호를 충족한다면 충분히 경제산업 분야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는 많다고 보임.

□ 격화될 미·중 갈등 구도 속 동아시아 대중외교 전초기지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에 집중해야

-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에 할당된 미국의 대외 안보 역량을 일부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이는 사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간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외교에 있어서는 쿼드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족시켰다는 점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중 외교의 전초기지임. 평택 미군기지는 사실상 중국에 있어 과거 미소 냉전 당시의 쿠바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음.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의 갈등은 분명히 예상되나, 큰 틀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트럼프 행정부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몸값을 더 높이고, 핵우산 강화와 미사일 역량 개선, 각종 첨단 군사 기술의 전수와 같은 ‘얻어낼 것’을 더 얻어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 특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일본을 비롯하여 호주와 동남아시아, 인도 외교 관계를 더 긴밀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임.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와 영해 위협에 대응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의 방위산업 지출 증가도 우리의 방산시장 개척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무분별한 PC, 극단적 사회 운동의 위험성 부각하는 분위기

-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배경에는, LGBTQ와 불법 이민자, 마약 등 사회적 불안정을 악화하는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분노한 미국 중산층의 집단적 ‘정권심판’ 투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 자유주의 제도 아래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존중하되, 각자의 호불호를 함부로 재단하고 이질적 요소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범죄시하는 민주당식 정치를 ‘전체주의’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캠페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로 인해 스포츠 생태계가 왜곡되는 점을 광고를 통해 부각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극단적 페미니즘, 사적 제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해지는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괴담과 선동에 기반한 비과학적 주장 등이 횡행하는 가운데, 트럼프 방식의 당당한 대응이 국내 자유-보수 진영의 기세를 더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성 레거시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에 맞서는 독립 언론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결어: MAGA-Friendly 측근과의 점점 확대

-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적인 단점으로는, 일관성이 부족한 ‘즉흥적’ 의사결정, 이른바 ‘이너 서클’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뤄지는 논의 등을 들 수 있음.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에 맞춰,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위 ‘MAGA-Friendly’ 인사들과의 인적 교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밀어붙일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트럼프 2.0시대 - 다시 쓰는 한국의 대응 전략

이진우

한반도청년미래포럼 국제지부 대표
전 미국 연방 하원 인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전략적이고 세밀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중 경쟁, 북핵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재편성 등 복잡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신중한 외교적 판단과 실행을 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다시 한 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2.0시대를 앞두고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자유질서에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외교적 접근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한국의 중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제 119대 의회의 중국과의 디커플링정책이다. 앞서 지적된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선과정에서부터 중국산 제품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선업 부활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해군력과 국방력을 증강시켜 중국과의 신냉전(New Cold War)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과의 냉전 때 사용했던 "우리가 승리하고 그들이 패한다 (We Win, They Lose)"는 전략을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지고, 미국과 동맹국이 이기는 것을 공화당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2기 행정부에 대중 강경파 인사들을 임명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을 주중대사로 내정하는 등 강경한 대중 매파 외교안보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또,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미 의회의 영향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하원 미중경쟁특별위원회로, 지난 118대 의회에서 틱톡금지법 등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 8일 하원 미중경쟁위원회 대변인은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경제, 우리 노동자, 기업, 국가 안보를 겨냥한 약탈적 경제 관행으로 미국의 열린 손을 이용했다. 우리는 자유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믿지만, 위원회가 초당적으로 권고한 대로 이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넘어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반영하는 무역 관계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으로 강경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119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중국의 PNTR 지위 박탈 등을 시작으로 대중 강경 정책이 지속 및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여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선명한, 선도적인(Pro-active) 외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G7+ 국가로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보다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같은 대전략(Grand Strategy) 수립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지정학적 이익과 미국 및 국제 자유 질서의 이익을 반영하는 새로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태지역 역내 및 국제자유질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외교 안보적 레버리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한일 협력의 지속성과 강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일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한일 간의 협력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번째로, 의회 외교 또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회 외교력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특정 이슈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응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수습하려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이나 종전선언과 같은 특정 이슈에만 매몰된 의회 외교 역시 바람직

하지 못하다.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의회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4월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설립된 한미의회교류센터와 주미 대사관 의회과 등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 및 보충하고, 의회 내 주요 그룹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 40여개국 의회가 중국의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IPAC(대중국 의회간 협의체)과 같은 국제 의원 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의회 외교 역시 주도해나가야 한다.

또, 미국 의회 내 중도보수 성향의 의원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아웃리치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 118대 의회에서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세출법안에 찬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개입주의 성향을 띄는 하원 중도 보수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속한 ‘메인 스트리트 코커스(Main Street Caucus)’, ‘거버넌스 그룹(일명, Tuesday Group)’, 그리고 양당의 협치파 의원들로 구성된 ‘문제 해결 코커스(Problem Solvers Caucus)’ 등은 향후 의회 내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 경우 특정 분파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도보수 성향을 가진 리사 머카우스키, 수잔 콜린스, 토드 영 등 약 9명의 상원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상원 공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존 톤 상원의원은 강성 친 트럼프 성향이 아니기에 존 톤 대표의 상원 내 역할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아웃리치는 미 의회의 외교안보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의 라포 형성 및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협상은 향후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닷케이 신문은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매우 괄목할 만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이른바 ‘브로맨스’ 외교처럼, 한국도 트럼프 개인과의 ‘케미스트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또, 기브 앤 테이크, 즉 거래 방식의 협상 전략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조선업 및 제조업 분야의 협력 증대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같은 국가 안보적 이익을 얻어내, 양측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윈윈(win-win) 방식의 대미외교 레버리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업 분야는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같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주목하고 있는 전략적 분야로, 한국은 이를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에는 미국 의회 내에서의 상당한 정치적 노력이 동반될 것이기에, 특히 MRO(유지, 보수, 정비) 부문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안보적 상호 의존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가안보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미 관계를 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